

제 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환경 동아리 ‘지지자-지구를 지키는 자’의 부장입니다. 우리 동아리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영구 동토층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영구 동토층은 온도가 섭씨 0도 이하로 유지되어 여름에도 녹지 않는 토양층을 말합니다. 영구 동토층이 분포해 있는 지대는 지구 전체 면적의 약 14%에 해당하며, 시베리아,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등 북극권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구 동토층은 수천 년에서 수만 년 동안 얼어붙은 상태였지만 최근에 빠른 속도로 녹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그곳에 묻혀 있던 대량의 이산화 탄소와 메테인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기 때문입니다. 수업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산화 탄소와 메테인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입니다. 과학자들은 영구 동토층에 묻혀 있는 탄소의 양이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의 양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테인은 방출되는 양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구 온난화에 끼치는 영향은 이산화 탄소의 20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보시는 자료에서 왼쪽 그래프는 영구 동토층이 녹지 않고 유지되는 지역의, 오른쪽 그래프는 영구 동토층이 급격히 녹고 있는 지역의 온실가스 농도를 나타냅니다. 왼쪽의 경우는 이산화 탄소나 메테인과 같은 온실가스 방출량이 미미하지만, 오른쪽에서는 이들 가스의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자료는 2007년부터 10년간 북극권의 연평균 기온을 지구 전체의 연평균 기온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 자료를 제시하며) 붉은 선과 파란 선 모두 기온이 상승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북극권의 연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붉은 선이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로 북극권 기온이 상승하면 그곳에 분포한 영구 동토층이 빠르게 녹아 처음에 보신 오른쪽 그래프와 같은 상황이 가속화됩니다.

영구 동토층에서 방출된 온실가스는 북극권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이는 결국 지구 전체의 온난화를 악화시킵니다. 그런 점에서 영구 동토층이 녹지 않도록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고, 우리 동아리의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어의 뜻을 설명하며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질문을 하면서 청중이 발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있다.
- ③ 학습 경험을 언급하며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며 발표의 설득력을 높이고 있다.
- ⑤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고 있다.

2. 발표자가 ㉠과 ㉡을 활용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을 활용해 영구 동토층이 녹는 원인을 제시하고, ㉡을 활용해 해당 원인의 소멸 과정을 보여 주었다.
- ② ㉠을 활용해 영구 동토층이 생성된 과정을 제시하고, ㉡을 활용해 해당 과정의 발생 원인을 보여 주었다.
- ③ ㉠을 활용해 영구 동토층이 녹는 속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을 활용해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④ ㉠을 활용해 영구 동토층이 녹을 때 생기는 문제를 보여 주고, ㉡을 활용해 이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⑤ ㉠을 활용해 영구 동토층이 유지된 지역의 문제 상황을 보여 주고, ㉡을 활용해 해당 문제가 가져올 결과를 제시하였다.

3. 다음은 발표를 들은 학생들의 반응이다. 발표의 내용을 고려하여 학생의 반응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생 1: 영구 동토층은 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발표를 듣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문제가 생긴 사례를 더 찾아봐야지.
- 학생 2: 영구 동토층이 주로 북극권에 분포해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는 어디에 분포해 있을지 궁금해. 발표에서 참조한 자료의 출처를 물어봐야겠어.
- 학생 3: 영구 동토층이 녹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자는 캠페인의 취지에 동의해. 인근 학교와 지역 사회에 이 문제를 어떻게 공유할지 생각해 봐야겠어.

- ① ‘학생 1’은 발표 내용을 듣고 알게 된 정보를 통해 기존의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언급하지 않은 발표 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학생 3’은 발표 내용을 수용하면서 주변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 ④ ‘학생 1’과 ‘학생 3’은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 ⑤ ‘학생 2’와 ‘학생 3’은 발표에 활용된 정보에 출처가 언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4~7] (가)는 교지 편집부 학생들이 나는 대화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학생이 작성한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학생 1: 지난번에 우리가 청소년의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 이용 실태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관련지어 교지에 글을 쓰기로 했었지? 조사해 온 내용을 이야기해 보자.

학생 2: 내가 본 자료에는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타 연령대의 이용 시간보다 길다고 나와 있었어.

학생 3: 내가 본 논문에서는 SNS 이용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을 심리적 측면과 연결지어 설명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SNS를 반복적으로 오래 이용하다 보면 그 안에 있는 정보를 놓칠 수 있다거나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하고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쉽다고 해. 이때 느끼는 불안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른대.

학생 1: SNS를 이용하다 보면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쉽다는 거지? 포모라는 말에 대해 더 설명해 줄래?

학생 3: 상품을 살 때 매진이 임박했다고 하면 나만 놓칠까 봐 불안해지잖아. 이런 소비자의 불안감을 이용하는 판매 전략을 포모라고 불렀대. 그런데 SNS가 널리 사용되면서 ‘정보 수집’이나 ‘인간관계 맺기’에서 뒤쳐질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사람들의 이러한 불안 심리를 포모 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된 거지. [A]

학생 2: 그런데 포모 증후군이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무슨 상관이 있어?

학생 3: 내 생각에도 포모 증후군을 설명하는 요인 중에서 ‘정보 수집’과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들과는 거리가 멀어 보여. 하지만 ‘인간관계 맺기’와 관련된 부분은 청소년이 다른 세대에 비해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심리적 성향과 관련된다고 생각해. 또래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SNS에 수시로 접속해서 교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노력하게 되고, 그만큼 많은 시간을 SNS를 이용하는 데 쓸 수밖에 없어. 그런데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걸 넘어 관계가 멀어질까 봐 심하게 불안하다면 포모 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하는 거지. [B]

학생 1: 그렇구나. 우리 글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긴 것을 포모 증후군의 ‘인간관계 맺기’와 관련지어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제안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야기해 보자.

학생 3: SNS 과다 사용 문제를 다룬 논문에 따르면, 심리적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성찰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 SNS를 이용하면서 불안한 기분을 느낀다면, 경각심을 갖고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자고 제안하자.

학생 2: 청소년기의 포모 증후군이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성향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친구를 SNS에서가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자고 제안해 보자.

학생 3: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도 필요할 것 같아.

학생 1: 정말 좋은 의견이야. 글을 쓸 때 필요한 자료는 도서관에 가서 같이 찾아보자.

(나) 학생의 초고

청소년의 대부분은 SNS를 이용한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은 타 연령대보다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난다. 설문 응답자 전체의 SNS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1시간 미만이지만, 청소년의 77%는 평균 3시간 이상, 19%는 평균 5시간 이상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이러한 SNS 이용 실태는 청소년기의 특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청소년은 타인의 기준과 인정을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자신을 남에게 보여 줄 수 있는 SNS에 빠져들기 쉽다. 또한 청소년은 또래 관계에 과하게 의존한다는 특성이 있다. SNS는 쉽고 빠르게 수많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세계라는 점에서 청소년에게 특히 매력적이다.

청소년의 과다한 SNS 이용 실태는 ‘포모 증후군’을 우려하게 한다. ‘포모(FOMO; Fear Of Missing Out)’는 원래 제품 공급량을 줄여 소비자를 조급하게 하는 마케팅 용어였지만, 최근에는 SNS 속 정보나 관계에서의 소외를 불안해하는 심리를 가리키는 말이 되었다. 청소년기에는 또래 관계를 중시하는 심리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대체로 SNS를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SNS에 수시로 접속해서 또래 사이의 교류에서 소외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포모 증후군이 걱정된다면 청소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개인의 측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자신의 SNS 이용을 돌이켜 보자. SNS 속 모든 인간관계와 연결되는 것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를 더 돈독히 하자.

㉠

4. (가)의 ‘학생 1’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부 대화 참여자의 발언이 맥락에서 벗어났음을 지적하고 논의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 ② 대화 참여자의 발언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와 관련하여 대화 참여자들이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 ③ 대화 참여자의 발언의 일부를 재진술하고 논의와 관련된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 ④ 대화 참여자의 발언 내용에 동의하고 더 논의할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지난번 대화 내용을 환기하고 이번에 논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5.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전문가의 관점을 소개하고, [B]에서는 소개한 관점의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B]에서는 설명한 내용의 일부를 활용하여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 상대방 발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B]에서는 정리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 ④ [A]에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B]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시한 사례를 분류하고 있다.
- ⑤ [A]에서 자신의 견해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B]에서는 다른 의견을 받아들여 자신의 견해를 수정하고 있다.

6. (가)의 대화 내용이 (나)에 반영된 양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나)의 3문단에서 청소년기의 심리적 특성과 함께 제시되었다.
- ② (가)에서 SNS 사용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제안하려는 내용이, (나)의 4문단에서 개인의 측면과 사회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제시되었다.
- ③ (가)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나)의 1문단에서 설문 결과에 나타난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 ④ (가)에서 청소년기의 특성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의 2문단에서 전문가가 제시한 청소년기의 두 가지 특징으로 구체화되어 반영되었다.
- ⑤ (가)에서 포모 증후군과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의 관련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나)의 2문단에서 청소년의 SNS 과다 사용과 포모 증후군의 악순환 관계로 제시되었다.

7. ㉠에 들어갈 문장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문단의 내용과 어긋나지 않도록 할 것.
- 내용의 대비가 드러나도록 비교의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포모 증후군은 아닌지 걱정만 하기보다는 사용 시간 점검으로 현명한 SNS 사용자가 되자.
- ② 이번 주말 현실 속 친구들과 시간을 보냈다면, 다음 주말은 SNS 친구들에게 더 집중하도록 하자.
- ③ 내 손을 잡아 줄 옆자리 친구만큼 내 마음을 잡아 줄 SNS 친구도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④ SNS 속 친구 목록의 길이에 마음을 쓰기보다 곁에서 마음을 나누는 몇몇 친구와의 시간을 소중히 여길 필요가 있다.
- ⑤ 일상생활에서 직접 만나는 친구를 SNS 속에서 자주 만나며 연결되지 못하는 불안에서 벗어나 우정의 폭을 넓혀 보자.

[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쓴 글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 작문 목적: 도서부 선정 '3월의 책'인 『페스트』의 독서 감상문을 작성한다.
- 예상 독자: 우리 학교 학생들
- 글을 쓸 때 고려할 사항:
 - 작품의 특징을 다양한 측면에서 소개한다.
 - 학생들이 『페스트』를 읽도록 권유한다.

[학생의 초고]

도서부 선정 '3월의 책'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이다. 이 책은 194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오랑이라는 도시가 페스트로 인해 봉쇄되면서 전염병에 맞서는 다양한 인간을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 나가는 끔찍한 모습을 매우 담담한 어조로 서술하고 있다. 그는 오랑에서 머물던 중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때의 경험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

『페스트』의 등장인물은 전염병의 창궐이라는 비극적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긍정적 인물 유형으로는 보건대 조직을 제안하는 타루를 비롯하여 의사 리외, 공무원 그랑, 성직자 파늘루, 기자 랑

[A] 베르가 있다. 이들은 동지애를 발휘하여, 페스트에 걸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다. 반면 부정적 인물인 코타르는 비극적 재난을 틈타 밀수로 부를 축적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런 대조를 통해 카뮈는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겨 내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카뮈는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밝힌 작가'라는 평을 받으며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그는 수상 후의 연설에서, 예술은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제시하여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단이라고 하였다. 작가가 말한 것처럼 『페스트』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따뜻한 봄이 왔지만 여전히 마음이 춥다면 『페스트』를 읽어보자.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8. '학생의 초고'에 나타난 글쓰기 전략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바르게 짝지은 것은?

< 보 기 >

- ㉠ 『페스트』를 읽었을 때의 효용을 밝히며 읽기를 권유한다.
- ㉡ 『페스트』의 내용을 개괄하여 작품의 대강을 파악하도록 한다.
- ㉢ 작품의 주요 구절을 인용하며 『페스트』를 추천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 ㉣ 다른 책과의 비교를 통해 『페스트』가 갖는 독자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9. <보기>는 윗글을 쓰기 위해 학생이 참고한 자료이다. 학생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ㄱ. 알베르 카뮈(1913~1960)는 프랑스의 소설가로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밝힌 작가’라는 평을 받으며 195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주요 작품으로는 『이방인』, 『페스트』 등이 있다.

— 문학가 사건의 ‘알베르 카뮈’ 항목 중 일부

ㄴ. 제가 보기에 예술이란 고독한 향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공통적인 괴로움과 기쁨의 유별난 이미지를 제시함으로써 최대 다수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수단입니다.

— 카뮈의 노벨 문학상 수상 후 연설 중 일부

ㄷ. 1941년부터 오랑에서 생활하던 카뮈는 그 지역에 장티푸스가 창궐하여 매일같이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을 목격하였다. 이때의 경험은 『페스트』의 창작에 영감을 주었다.

— 출판사의 책 소개 중 일부

- ① ㄱ을 활용하여 작가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 ② ㄴ을 활용하여 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작품 창작의 동기가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 ③ ㄴ을 활용하여 작품이 보편적인 공감을 획득하고 있음을 작가의 예술관과 연결하여 드러내고 있다.
- ④ ㄷ을 활용하여 특정 도시가 작품 속 공간으로 설정된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⑤ ㄷ을 활용하여 전염병에 대한 작가의 경험이 작품의 사실성을 갖추는 데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10. <보기>는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A]를 수정한 것이다. 선생님이 했을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작가는 재난이라는 상황을 부각하기보다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에 주목한다. 최전선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리외, 민간 보건대 조직을 주도한 타루,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말단 공무원 그랑, 신념과 다르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내적 갈등으로 고민하는 성직자 파늘루, 탈출을 시도하다 오랑에 남아 페스트와 싸운 기자 랑베르, 혼란 속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밀수업자 코타르 등 비극적인 재난 속에서 작품의 인물들은 각자의 선택을 한다. 페스트라는 질병과의 전쟁 속에서 매일 패배하면서도 굴하지 않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카뮈는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암시한다.

- ① 책의 장점만 제시하기보다 책의 단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책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으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 ② 인물 유형을 단순화하기보다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 주고, 뒤 문단에서 언급된 작가에 대한 평가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내용으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 ③ 인물 간 갈등의 원인만 제시하기보다는 갈등의 해소 과정을 보여 주고, 갈등 상황에 대처할 때 독자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에 대한 내용으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 ④ 인물에 대한 정보를 간략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소설 속 인물의 행동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 ⑤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대신 책에서 받은 인상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뒤 문단에서 언급된 독서 행위의 의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문단을 마무리하는 게 좋겠어.

[11~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법적으로 적절한 문장은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온전히 갖추어야 한다. 이때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서술어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풀다’가 서술어로 쓰이면 이 서술어는 주어와 목적어를 요구한다. 따라서 다른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풀었다.”라는 문장은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온전히 갖추어지지 않아서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이 된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는 국어사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국어사전의 일부이다.

풀다 ㉠
 ① 【...을】
 「1」 묶이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 따위를 그렇게 아니한 상태로 되게 하다.
 ∴
 「5」 모르거나 복잡한 문제 따위를 알아내거나 해결하다.
 ② 【...에 ...을】
 「1」 액체에 다른 액체나 가루 따위를 섞다.

[A] ‘【 】’ 기호 안에는 표제어 ‘풀다’가 서술어로 쓰일 때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를 ‘문형 정보’라고 한다. 원칙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항상 요구하므로 문형 정보에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의미를 가진 경우도 있다. 이러한 단어가 서술어로 쓰일 때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에 따라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다를 수 있으며, 국어사전에서도 문형 정보가 다르게 제시된다.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갖추어져 있어도 문장 성분 간에 호응이 되지 않으면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이 될 수 있다. 호응이란 어떤 말이 오면 거기에 응하는 말이 오는 것을 말한다.

길을 걷다가 흙탕물이 신발에 튀었다. 나는 신발에 얼룩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물에 세제와 신발을 풀었다. 다행히 금세 자국이 없어졌다.

위 예에서 밑줄 친 문장이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이유는 ㉠ 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쓰인 ‘풀다’의 ㉠로는 ㉡이 와야 호응이 이루어진다.

※ ‘*’는 문법적으로 부적절한 문장임을 나타냄.

11.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1」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는 부사어를 요구한다.
- ② 문형 정보에 주어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풀다’는 주어를 요구한다.
- ③ ㉠-「1」과 ㉡-「1」의 의미로 쓰이는 ‘풀다’는 모두 목적어를 요구한다.
- ④ ‘풀다’가 ㉠-「1」의 의미로 쓰일 때와 ㉠-「5」의 의미로 쓰일 때는 필수적 문장 성분의 개수가 같다.
- ⑤ ‘그는 십 분 만에 선물 상자의 매듭을 풀었다.’에 쓰인 ‘풀다’의 문형 정보는 사전에 ‘【...에 ...을】’로 표시된다.

12. ㉠,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
| ① 목적어 | 액체나 가루 따위에 해당하는 말 |
| ② 목적어 | 복잡한 문제 따위에 해당하는 말 |
| ③ 부사어 | 액체에 해당하는 말 |
| ④ 주어 | 복잡한 문제 따위에 해당하는 말 |
| ⑤ 주어 | 액체에 해당하는 말 |

13. <보기 1>의 ‘표준 발음법’에 따라 <보기 2>의 ㉠~㉤을 발음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표준 발음법

제10항 겹받침 ‘ㄱ’, ‘ㄴ’, ‘ㄹ’, ‘ㄷ’, ‘ㄷ’,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ㄹ, ㄷ, ㅂ]으로 발음한다.

제11항 겹받침 ‘ㄷ, ㅌ,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ㅌ, ㅍ]으로 발음한다. 다만, 용언의 어간 말음 ‘ㄷ’은 ‘ㄱ’ 앞에서 [ㄷ]로 발음한다.

제14항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엎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제23항 받침 ‘ㄱ(ㄲ, ㅋ, ㆁ, ㄷ, ㄷ), ㄷ(ㅌ, ㅍ, ㅌ, ㅍ), ㅌ(ㄷ, ㅌ, ㅍ), ㅍ(ㄷ, ㅌ, ㅍ)’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ㅌ, ㅍ, ㅌ, ㅍ’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보기 2>

책장에서 ㉠ 읽지 않은 시집을 발견했다. 차분히 ㉡ 앉아서 마음에 드는 시를 예쁜 글씨로 공책에 ㉢ 옮겨 적었다. 소리 내어 시를 ㉣ 읊고, 시에 대한 감상을 적어 보기도 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 값진 경험이었다.

- ① ㉠은 제11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일찌]로 발음해야겠군.
- ② ㉡은 제14항 규정에 따라 [안자]로 발음해야겠군.
- ③ ㉢은 제11항 규정에 따라 [움겨]로 발음해야겠군.
- ④ ㉣은 제11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읍꼬]로 발음해야겠군.
- ⑤ ㉤은 제10항, 제23항 규정에 따라 [갑찐]으로 발음해야겠군.

14. <보기 1>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선생님: 하나의 단어가 수사로 쓰이기도 하고 수 관형사로도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수 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도 있습니다.

<보기 2>

- 나는 필통에서 연필 하나를 꺼냈다.
- 그 마트는 매월 둘째 주 화요일에 쉰다.
- 이번 학기에 책 세 권을 읽는 게 내 목표야.
- 여섯 명이나 이 일에 자원해서 정말 기쁘다.

- | | | |
|---------|----------|----------|
| ① 하나 | ② 세 | ③ 하나, 여섯 |
| ④ 둘째, 세 | ⑤ 둘째, 여섯 | |

1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현: 저기 ㉠ 버스 온다. 얼른 타자. 우리가 오늘 영화를 볼 장소로 가는 버스야.
 경준: ㉡ 차에 사람이 많아 보여. 차라리 택시를 타자.
 지현: 좋아. 그런데 ㉢ 이곳이 원래 사람이 이렇게 많았나?
 경준: ㉣ 여기가 혼잡한 데는 아닌데 주말이라 그런 것 같아. 급하게 와서 그런지 목이 마르네. 물병 좀 꺼내 줄래? 배낭을 열면 물병이 두 개 있어.
 지현: 잠시만. ㉤ 이 중에서 더 작은 ㉥ 컵을 주면 돼?
 경준: 응, 고마워. 그런데 ㉦ 우리가 오늘 보기로 한 영화는 누가 추천한 거야?
 지현: ㉧ 자기가 봤는데 재미있더라면서 민재가 추천해 줬어.

- ① ㉡은 '버스'의 상위어로서 ㉠을 가리킨다.
- ② ㉢과 ㉣은 다른 단어이지만, 같은 곳을 가리킨다.
- ③ ㉤은 '배낭'을, ㉥은 '물병'을 가리킨다.
- ④ ㉦은 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한다.
- ⑤ ㉧은 '민재'를 가리킨다.

[16~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마르크스는 사물의 경제적 가치를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로 구분하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제적 가치가 교환가치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다. 사용가치는 사물의 기능적 가치를, 교환가치는 시장 거래를 통해 부여된 가치를 의미하는데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고정적이므로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만 경제적 가치가 결정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사물의 거래 가격은 결국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현상으로 보고 소비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주장과 달리 ㉡ 보드리야르는 교환가치가 아닌 사용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며, 자본주의 사회는 소비 우위의 사회라고 주장했다. 이때 보드리야르가 제시한 사용가치는 사물 자체의 유용성에 대한 가치가 아니라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sign)가 ㉢ 지니는 기능적 가치, 즉 기호가치를 의미한다.

기호는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으로서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기표와 의미 내용인 기의로 구성되는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가령 '남성'이란 문자는 필연적으로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며 '여성'이란 기호와 의 관계 속에서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어떤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간의 관계, 즉 [기호 체계]이다.

보드리야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소비자가 기호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보았다. 대량 생산 기술의 발전으로 수요를 충족하고 남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더 이상 소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

[A]

징을 얻기 위해 명품 가방을 소비한다. 이때 사물은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의 원인은 사물이 상징하는 특정 사회적 지위에 대한 욕구이다.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이는 기호가 다른 기호와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 내용이 결정되는 것과 관계된다. 특정 사물의 상징은 기호 체계, 즉 사회적 상징체계 속에서 유동적이며, 따라서 ㉣ 상징체계 변화에 따라 욕구도 유동적이다. 이때 대중매체는 사물의 기의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욕구를 강제할 수 있다. 현실이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될 때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서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가령 텔레비전 속 유명 연예인이 소비하는 사물은 유명 연예인이라는 기호에 의해 새로운 의미 내용이 부여된다. 요컨대 특정 사물에 대한 현대인의 욕망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강제된다.

보드리야르는 기술 문명이 초래한 사물의 풍요 속에서 현대인의 일상생활이 사물의 기호가치와 이에 대한 소비에 의해 규정된다고 보고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로 명명하였다.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6.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 ㉡의 주장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소비가 생산에 종속되므로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결국 동일하다.
- ② ㉠: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변하지 않으므로 소비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분석해야 한다.
- ③ ㉡: 소비자에게 소비의 자율성이 존재하므로 교환가치가 사용가치를 결정한다.
- ④ ㉡: 개인에게 욕구가 강제되므로 소비를 통해 집단 간의 사회적 차이가 소멸한다.
- ⑤ ㉡: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호가치가 소비의 원인이다.

17. [기호 체계]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물은 기표로서의 추상성과 기의로서의 구체성을 갖는다.
- ② 사물과 그것이 상징하는 특정한 사회적 지위와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 ③ 사물은 사물 자체가 아닌 사물 간의 관계를 통해 의미 내용이 결정된다.
- ④ 소비는 사물이라는 기호를 통해 특정 계층 또는 집단의 일원이라는 상징을 얻는 행위이다.
- ⑤ 기호가치는 사물의 기의와 그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와 관련될 뿐 사물의 기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18. ㉠의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징체계 변화에 의해 사물 자체의 유용성이 변화한다.
- ② 사물에 대한 욕구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양상을 보인다.
- ③ 사물의 기호가치가 변화하면 사물에 대한 욕구도 변화한다.
- ④ 사물을 소비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연 발생적 욕구에 따른 것이다.
- ⑤ 사물이 지시하는 의미 내용과 사물에 대한 욕구는 서로 독립적이다.

19. 윗글의 '보드리야르'의 관점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개성이란 타인과 구별되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으로, 현대 사회의 개인은 개성을 추구함으로써 자신의 고유함을 드러내려 한다. 이때 사물은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이다. 찢어진 청바지를 입는 것, 타투나 피어싱을 하는 것은 사물을 통한 개성 추구의 사례이다. 이런 점에서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와 같은 광고 문구는 개성에 대한 현대인의 지향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타인과 구별되는 개성이란 개인이 소속되길 바라는 집단의 차별화된 속성일 수 있겠군.
- ② 소비사회에서 사물을 통한 개성의 추구는 그 사물의 기호가치에 대한 욕구에서 비롯되겠군.
- ③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을 드러내는 수단이자 젊은 세대의 일원이라는 기호를 상징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④ '당신의 삶에 차이를 만듭니다'라는 광고 문구는 그 광고의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사회적 차이를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제하는 것일 수 있겠군.
- ⑤ 타투나 피어싱을 한 유명 연예인을 텔레비전에서 보고, 이를 따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대중매체를 매개로 하여 추상화된 기호를 소비하는 것일 수 있겠군.

20.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그는 항상 지갑에 현금을 지니고 있었다.
- ② 그녀는 어릴 때의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 ③ 우리는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을 지녀야 한다.
- ④ 사람은 누구나 고정 관념을 지니고 살기 마련이다.
- ⑤ 그는 어린 시절의 추억을 항상 마음속에 지니고 있다.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플라톤은 초월 세계인 이데아계와 감각 세계인 현상계를 구분했다. 영원불변의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근본이 되는 보편자, 즉 형상(form)이 존재하는 곳으로 이성으로만 인식될 수 있는 관념의 세계이다. 반면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형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세계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물이 감각에 의해 지각된다. 플라톤에 따르면 ㉠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뜬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다. 예를 들어 목수는 이성을 통해 침대의 형상을 인식하고 그것을 모방하여 침대를 만든다. 그리고 화가는 감각을 통해 이 침대를 보고 그림을 그린다. 결국 침대 그림은 보편자에서 두 단계 떨어져 있는 열등한 것이며,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하는 허구의 허구에 불과하다. 이데아계의 형상을 모방하여 생겨난 것이 현상인데, 예술은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기 때문이다.

플라톤은 시가 회화와 다르다고 보았다. 고대 그리스에서 음유시인은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 냈다. 이 과정에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갖춘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령 화를 잘 내는 인물은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안색이 붉어지는 등 다양한 감각 가능한 현상들을 모방함으로써 쉽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용기나 절제력이 있는 인물에 수반되는 감각 가능한 현상은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보는 관객들이 이성이 아닌 감정이나 욕구와 같은 비이성적인 것들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고 보았다.

(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 예컨대 사람은 나이가 들며 늙는데, 만약 이데아계의 변하지 않는 어린아이의 형상과 성인의 형상을 바탕으로 각각 현상계의 어린아이와 성인이 생겨났다면, 현상계에서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한다고 보고, 이를 가능태와 현실태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하였다. 가능태란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힘이자 질료를 의미하며, 현실태란 가능태에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이다. 가령 도토리는 떡갈나무가 되기 위한 가능태라면, 도토리가 떡갈나무가 된 상태가 현실태이다. 이처럼 생성·변화하는 모든 것은 목적을 향해 움직이므로 가능태에 있는 것은 형상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해 나아가는데, 이 이행 과정이 운동이다. 즉 운동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있어 예술의 목적은 개개의 사물에 내재하고 있는 보편자, 즉 형상을 표현해 내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는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역사는 개별적 사건들의 기록일 뿐이지만 시는 개별적 사건에 깃들여 있는

보편자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삶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였다.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인 것이다. 또한 관객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 삶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와 다른 종류의 쾌감도 경험할 수 있다. 관객은 고통을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그에 대한 연민과 함께, 자신도 유사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는 공포를 느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정이 고조됐다가 해소되면서 얻게 되는 쾌감, 즉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

2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가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된 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 ③ (가)와 달리 (나)는 특정 사상가가 생각하는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나)와 달리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에 내재한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보이는 한계를, (나)는 특정 사상가의 예술관이 주는 의의를 제시하고 있다.

22. (가)의 ‘플라톤’의 사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예술은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 ②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다.
- ③ 현상계의 사물을 모방한 예술은 형상보다 열등한 것이다.
- ④ 예술의 표현 대상은 사물이 아니라 사물 안에 존재하는 형상이다.
- ⑤ 이데아계는 현상계에 나타난 모든 사물의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23. (나)의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형상]과 [질료]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상은 질료와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다.
- ② 질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적 힘이다.
- ③ 형상이 질료에 실현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
- ④ 형상과 질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다.
- ⑤ 생성·변화하는 것은 형상이 질료에 완전히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한다.

24. (가)와 (나)를 참고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을 비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현상계의 사물이 형상을 본뜬 것이라면 현상계의 사물이 생성·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 ② 형상이 변하지 않는 것이라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
- ③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라면 현상계에서 사물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 ④ 형상이 현상계를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이라면 형상을 포함하지 않는 사물을 감각으로 느끼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⑤ 현상계의 모든 사물이 형상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면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인간이 형상을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5. (가)의 ‘플라톤’과 (나)의 ‘아리스토텔레스’가 <보기>에 대해 보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고대 그리스의 비극시 『오이디푸스 왕』의 주인공 오이디푸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인물이다. 비극시를 공연하는 음유시인은 목소리, 몸짓으로 작품 속 오이디푸스를 관객 앞에서 연기한다. 음유시인의 연기에 몰입한 관객은 덕성을 갖춘 주인공이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행해지는 모습을 보고 연민과 공포를 느낀다.

- ① 플라톤: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갖춘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그에 대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뜬 허구이다.
- ② 플라톤: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겠지만, 관객은 이를 감각으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감정과 욕구에 지배되어 타락하게 된다.
- ③ 플라톤: 음유시인의 목소리와 몸짓을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된 것이다.
- ④ 아리스토텔레스: 음유시인이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들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것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 오이디푸스가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것을 본 관객들은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는 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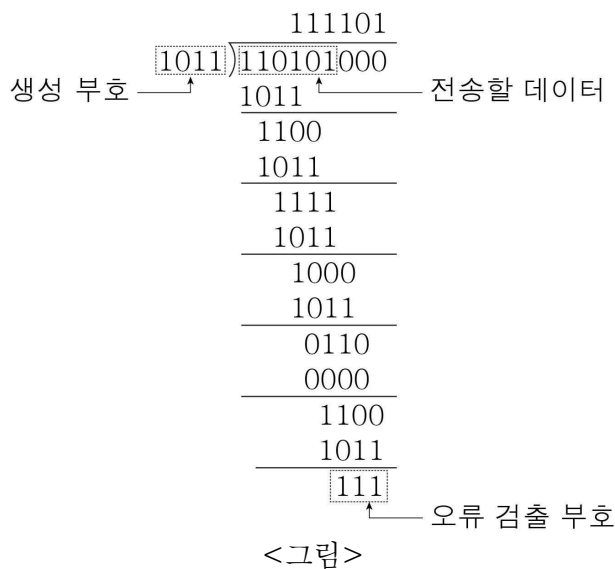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 수신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다.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한다.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지 검출하는 가장 간단한 방식은 ㉠ 패리티 검사이다. 이 방식은 전송할 데이터에 패리티 비트라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하는 방법으로,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든다.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드는 방식을 짝수 패리티, 홀수로 만드는 방식을 홀수 패리티라고 하고 송·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짝수 패리티를 사용한다면 송신기는 항상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로 만들어서 전송하지만 만일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가 되면 수신기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패리티 검사는 ㉡ 수신한 데이터에서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이를 검출하기 어렵다. 또한 오류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있을 뿐 데이터 내 오류의 위치는 알아낼 수 없다.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해서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면 오류의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오류의 위치도 알아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송신기가 1100011 1111111을 전송한다고 하자. 송신기는 이를 1100011과 같이 2차원 배열로 구성하고 가로 방향인 모든 행과 세로 방향인 모든 열에 패리티 비트를 생성한 후 이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한다.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의 각각의 행과 열의 1의 개수를 세어 오류를 검사한다. 만약 어떤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 비트가 포함된 행과 열에서 모두 오류가 검출된다. 따라서 오류가 발생한 위치를 알 수 있다. 다만 동일한 행 또는 열에서 짝수 개의 오류가 발생하면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다.

㉢ CRC 방식은 미리 선택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방식이다. 전송할 데이터를 생성 부호로 나누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데 모듈로-2 연산을 활용한다. 모듈로-2 연산은 자릿수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으로 해당 자릿수의 비트 값이 같으면 0, 다르면 1이 된다.



<그림>과 같이 생성 부호가 1011이고 전송할 데이터가 110101인 경우를 보자. 전송할 데이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비트가 더 필요하다. 송신기는 전송할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 후 이를 생성 부호로 나누고 그 나머지가 오류 검출 부호가 된다.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 ㉣ 110101111만을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 부호로 나눈다. 수신한 데이터는 전송할 데이터에 나머지를 추가했으므로 오류가 없다면 생성 부호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 된다. 이때 나머지가 0이 아니면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CRC 방식은 복잡하지만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다.

26. 밑줄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CRC 방식은 모듈로-2 연산을 사용해서 생성 부호를 만들어 낸다.
- ② 패리티 검사에서 송신기와 수신기는 동일한 패리티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
- ③ CRC 방식에서 생성 부호의 비트 수는 오류 검출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
- ④ 짝수 패리티는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인지 여부를 검사한다.
- ⑤ CRC 방식은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다.

27. ㉠과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과 달리 데이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짝수나 홀수가 되도록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한다.
- ② ㉢은 ㉠과 달리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 송신기와 수신기 모두에서 오류 검사를 해야 한다.
- ③ ㉠과 ㉢은 모두, 수신한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를 수신기가 판단한다.
- ④ ㉠과 ㉢은 모두,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해야 한다.
- ⑤ ㉠과 ㉢은 모두, 전송할 데이터가 같더라도 오류 검출 부호는 다를 수 있다.

28.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송신기가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 ②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항상 홀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 ③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항상 짝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 ④ 오류가 발생했을 때 전송되는 패리티 비트의 크기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⑤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와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때의 패리티 비트가 동일하기 때문에

29.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송신기는 오류 검출 방식으로 홀수 패리티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행	→	0	1	0	0	1	1	0	0
열	↓	0	1	0	0	1	1	0	0
		1	1	1	1	0	0	1	1
		0	0	1	1	0	0	1	0
		0	1	0	1	0	0	1	0

(단, 패리티 비트의 오류는 없다고 가정한다.)

- ① 첫 번째 행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② 여섯 번째 열은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홀수이므로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 ③ a가 포함된 행과 열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가 각각 짝수이므로 수신기는 a를 오류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 ④ 수신한 데이터에서 b도 0으로 바뀌어서 수신되었다면 데이터의 오류 발생 여부를 검출할 수 없었을 것이다.
- ⑤ 짝수 패리티를 활용했다면 송신기는 c를 1010110으로 생성했을 것이다.

30. <보기>는 수신기가 c의 오류를 검사한 연산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11101
1011)110101111
	1011
	1100
	1011
	1111
	1011
	1001
	1011
	0101
	0000
	1011
	1011
	0

- ①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 부호인 '1011'을 사용하여 모듈로-2 연산을 하였군.
- ②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있는 '111'은 송신기에서 생성한 오류 검출 부호이군.
- ③ 수신기가 모듈로-2 연산을 할 때는 수신한 데이터에 생성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의 0을 추가하지 않았군.
- ④ 수신기가 연산한 몫인 '111101'이 송신기가 전송한 데이터와 동일하기 때문에 수신기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겠군.
- ⑤ 수신기가 연산한 결과의 나머지가 0이 아니었다면 수신기는 송신기에 재전송을 요청했겠군.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사개 틀린* 고풍(古風)의 ㉠ 뒷마루에 없는 듯이 앉아
아직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을 기다린다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 없이

이제 저 감나무 그림자가
사뿐 한 치씩 옮겨오고
이 마루 위에 빗갈의 방식이
보시시 깔리우면

나는 내 하나인 외론 벗
가냘픈 내 그림자와
말없이 몸짓 없이 서로 맞대고 있으려니
이 밤 읊기는 발짓이나 들려오리라

- 김영랑, 「사개 틀린 고풍의 뒷마루에」 -

* 사개 틀린: 사개가 틀어진. 한옥에서 못을 사용하지 않고 목재의 모서리를 깎아 요철을 끼워 맞추는 부분을 '사개'라고 한다.

(나)

우수* 날 저녁
그 전날 저녁부터
오늘까지 연 닷새 간을
고향, 내 새벽 ㉡ 산 여울을
찰박대며 뛰어 건너는
이쁜 발자욱 소리 하날
듣고 지내었더니
그 새끼발가락 하날
가만가만 만지작일 수도 있었더니
나 실로 정결한 말씀만 고를 수 있었더니
그가 왔다.

진솔* 속곳을 갈아입고

그가 왔다.
이른 아침,
난 그를 위해 닭장으로 내려가고
따뜻한 달걀
두 알을 집어내었다.
경칩*이 멀지 않다 하였다.

- 정진규, 「따뜻한 달걀」 -

* 우수(雨水), 경칩(驚蟄): 입춘(立春)과 춘분(春分) 사이에 드는 절기. 우수는 눈이 그치고 봄비가 오기 시작하는 시기, 경칩은 벌레가 깨어나고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가 땅 밖으로 나오는 시기이다.
* 진솔: 옷이나 버선 따위가 한 번도 빨지 않은 새것 그대로인 것.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움직임의 정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원경과 근경을 대비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정의 진술을 활용하여 현실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자아내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은 모두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일상적 삶의 공간이다.
- ②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실을 관조하며 스스로를 성찰하는 공간이다.
- ③ ㉠은 상승하는 대상과 친밀감을, ㉡은 하강하는 대상과 일체감을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은 고독하고 적막한 상황이, ㉡은 생동하는 청량한 기운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다.
- ⑤ ㉠은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이, ㉡은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3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가)와 (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에 감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의 화자는 밤이 깊어지면서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있고, (나)의 화자는 절기가 바뀌면서 봄빛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의 점진적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화자는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면서, 자연을 자신과 교감을 이루는 주체로 인식한다.

- ① (가)의 화자가 ‘아무런 생각’이나 ‘뜻 없이’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것은, 자연의 변화를 감지하기 위해 온몸의 감각을 집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소리로 인식되던 대상의 ‘새끼발가락’을 만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이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떠오를 기척도 없는 달’과 (나)의 ‘이쁜 발자욱 소리’ 하나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조바심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에서는 달이 뜨는 것을 ‘이 밤 읊기는 발짓’을 한다고 표현하고, (나)에서는 뚜렷해진 봄빛을 ‘진술 속곳을 갈아입’은 것으로 표현하여 자연을 행위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군.
- ⑤ (가)에서는 달이 만든 ‘내 그림자’를 ‘벗’ 삼아 ‘서로 맞대고 있으려’는 데서, (나)에서는 ‘경칩’을 예감하며 ‘달걀’의 온기를 느끼는 데서 화자와 자연이 교감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군.

[34 ~ 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가마를 급히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
 녹양에 우는 **피꼬리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줄음을 내어 펴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된서리 걷힌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누렇게 익은 벼는 또 어찌 넓은 들에 펼쳐졌는가
 ㉠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야단스러워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설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뇨
 ㉡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나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번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설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나
 노래 부르게 하고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고 방울 흔들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굶혔다가 젖혔다가
 읊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나

- 송순, 「면양정가」 -

* 경궁요대(瓊宮瑤臺):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 옥해은산(玉海銀山):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
 * 악양루: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긴 곳.

(나)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 광어, 문어, 고등어, 평메, 횡대..... 생선이 많지만 모두 한두 끼에 나를 물리게 하고 만다. 그저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가재미만이 흰밥과 빨간 고추장과 함께 **가난하고 쓸쓸한** 내 상에 한 끼도 빠지지 않고 오른다. 나는 이 가재미를 처음 십 전 하나에 뽕가웃*씩 되는 것 여섯 마리를 받아 들고 왔다. 다음부터는 할머니가 두 두름 마흔 개에 이십오 전씩에 사오시는데 큰 가재미보다도 잔 것을 내가 좋아해서 모두 손길만큼 한 것들이다. 그동안 나는 한 달포 이 고을을 떠났다 와서 오랜만에 내 가재미를 찾아 생선장으로 갔더니 섭섭하게도 이 물선*은

보이지 않았다. 음력 팔월 초상이 되어서야 이내 친한 것이 온다고 한다. ㉔ 나는 어서 그때가 와서 우리들 흰밥과 고추장과 다 만나서 아침저녁 기뻐하게 되기만 기다린다. 그때엔 또 이 십오 전에 두어 두름씩 해서 나와 같이 ㉕ 이 물선을 좋아하는 H한테도 보내어야겠다.

묘지와 뇌옥과 교회당과의 사이에서 생명과 죄와 신을 생각하기 좋은 운흥리를 떠나서 오백 년 오래된 이 고을에서도 다 못한 곳 옛날이 헐리지 않은 중리로 왔다. 예서는 물보다 구름이 더 많이 흐르는 성천강이 가까웁고 또 백모관봉*의 시허연 눈도 바라보인다. 이곳의 좌우로 긴 회담*들이 맞물고 늘어선 좁은 골목이 나는 좋다. 이 골목의 공기는 하이야니 밤꽃의 내음새가 난다. 이 골목을 나는 나귀를 타고 **일없이 왔다갔다 하고 싶다**. 또 예서 한 오 리 되는 학교까지 나귀를 타고 다니고 싶다. 나귀를 한 마리 사기로 했다. ㉖ **그래 소장 마장을 가보나 나귀는 나지 않는다. 촌에서 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서 수소 문해도 나귀를 팔겠다는 데는 없다. 얼마 전엔 어느 아이가 재래종의 조선 말 한 필을 사면 어떠냐고 한다. 값을 물었더니 한 오 원 주변 된다고 한다. 이 좀말*로 할까고 머리를 기울여도 보았으나 그래도 나는 그 **치량한 당나귀가 좋아서 좀더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

- 백석, 「가재미·나귀」 -

- * 뺨가웃: 한 뺨의 반 정도 되는 길이.
- * 물선: 음식을 만드는 재료.
- * 백모관봉: 흰 관모 모양의 봉우리. 정상에 흰 눈이 덮인 산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로, 여기서는 백운산을 말함.
- * 회담: 석회를 바른 담.
- * 좀말: 아주 작은 말.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색채어를 활용하여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다.
- ②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
- ③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연쇄적 표현을 통해 주변 사물을 사실감 있게 제시하고 있다.
- ⑤ 계절감을 환기하는 사물을 통해 자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35. ㉑~㉕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감각적 경험을 통해 환기된 장면을 묘사하여 인간이 자연물과 어우러지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㉒: 시간을 표현하는 시어를 대응시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후에도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㉓: 역사적 인물과 견주며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기대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 느낄 심정을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 ⑤ ㉕: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시도한 방법이 실패하는 과정에서 느낀 체념을 드러내고 있다.

3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 공간을 체험하는 주체는 공간 및 주변 경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며, 이 인식은 주체의 지향이나 삶에서 중시하는 가치를 암시한다. (가)의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함께 풍류 지향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나)의 글쓴이는 공간의 변화와 대상에 대한 인식을 관련지으며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를 암시하고 있다.

- ① (가): '술 아래 굽은 길'을 오가는 화자는 '피꼬리'의 '교태겨워하는' 모습에 주목하면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태도와 동일성을 발견하고 있다.
- ② (가): '간 데마다 승경'이라는 화자의 인식은 '내 몸이 쉴 틈 없'는 다양한 일들을 통해 자연의 다채로운 풍광을 즐길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 ③ (가): '이 산'과 '저 산'에서 '번거로운 마음'과 '버릴 일이 전혀 없'음을 동시에 느끼는 화자의 모습에는 '인간 세상'의 번잡한 일상을 여전히 의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있다.
- ④ (나):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주목하게 된 '가재미'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가난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것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 '중리'로 와서 '재래종의 조선 말'보다 '치량한 당나귀'와 '일없이 왔다갔다 하고 싶다'는 글쓴이의 바람은 일상의 작은 존재에 대해 느끼는 우호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37. ㉑와 ㉒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㉑는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주는, ㉒는 글쓴이에게 고독감을 느끼게 하는 매개체이다.
- ② ㉑는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하는, ㉒는 글쓴이가 느끼는 기쁨을 확장하는 매개체이다.
- ③ ㉑는 화자가 내면의 만족감을 드러내는, ㉒는 글쓴이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매개체이다.
- ④ ㉑는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 주는, ㉒는 글쓴이에게 심경 변화의 계기를 제공하는 매개체이다.
- ⑤ ㉑는 화자에게 이상적 세계의 모습을, ㉒는 글쓴이에게 윤리적 삶의 태도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이다.

[38 ~ 4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권중만이는 벌써 오륙 년째나 동네를 드나드는 발뽀기 전문의 채소 장수였다. 동네에서 채소를 돈거리로 갖기 시작한 것도 권을 보고 한 일이었다. 권의 발걸음이 그치지 않는 한 안팎 삼동네의 채소는 사철 시장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으니까. 동네에서는 권이 얼굴만 비쳐도 반드시 손님으로 대접하였다. 사람이 녹아서 흥정을 하는 데도 그만하면 무던하였지만 그보다는 그동안 동네에 베푼 바가 그러고도 남음이 있는 덕분이었다.

권은 알 만한 사람은 다들 일러 오던 채소 정보통이었다. 권은 대개 어느 고장에서 무엇을 얼마나 하고 있으며 또한 근간의 작황이 어떠한지 장차 회계가 어떻게 되리라는 것까지도 미리 사심 없이 귀땀하기를 일삼곤 하였다. 영두는 그의 남다른 정확성에 혀를 들렀고, 한 번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어본 적도 있었다. 권은 장삿속에 부러 비썰면서 유세를 부러봄직도 하건만, 천성이 능준하여 그러는지 그저 고지식하게 말하는 데에만 서슴이 없을 따름이었다.

“그건 어려울 거 하나 없시다. 큰 종묘상 몇 군데에서 씨앗이 나간 양만 알아도 얼거리가 대충 드러나니까…….”

“몇 년 동안의 씨앗 수급 상황만 알면 사오 년 앞까지도 내다볼 수가 있다는 얘기네요.”

“그건 아마 어려울 거요. 왜냐하면 빵이랑 라면이랑 고기 먹고 크는 핵가족 아이들은 김치를 거의 안 먹고, 좀 배운 척하는 젊은 주부들 역시 김장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 애들이 김치맛을 알 겨를도 없거니와, 공장 김치나 시장 김치는 그만큼 맛도 우습고 비싸서 먹는됐자 양념으로나 먹으니 어떻게 대중을 하겠수.”

“그럼 무 배추 농사는 머지않아 거덜이 나고 만다는 얘가요?”

“그럴 리야 있겠수.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요즘 우리나라 김치 붐이 일어서 갈수록 인기가 높다거든.”

“국내 수요가 주는 대신에 대일 수출이 느니 그게 그거란 얘기군요.”

“그게 아니라 일본에서 유행하면 여기서도 유행하니깐 김치도 자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중략)

이론이 갖추어진 사람들은 불로소득을 노리는 발뽀기 장수들로 하여 농산물이 제값을 받지 못하고 유통 구조가 어지러워진다고 몰아세우기에 항상 자신만만한 것 같았다. 물론 옳은 말이었다. 그렇지만 영두가 보기에는 발뽀기 장수들이야말로 가장 미더운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였다. 그들이 아니면 누가 미리 목돈을 쥐여줄 것이며, 다음의 뒷그루 재배에는 또 무엇으로 때맞추어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출하와 수송에 따른 균일과 부대 비용을 줄여 주는 것도 오로지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러기에 지난번의 그 일은 더욱 권중만이답지 않은 처사였다. 권은 텃밭에 간 알타리무를 가져가면서 뜻밖에도 만 원만 접어 달라고 앓던 짓을 하였다. 영두는 내키지 않았다. 돈 만 원이 커서가 아니었다. 만 원이면 자기 내외의 하루 품인데, 그 금쪽같은 시간을 명색 없이 차압당하는 꼴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이었다. 권은 정색을 하고 말했다.

“요새는 아파트 사람들도 약아져서 밭동에 붙은 흙을 보고 사가기 땀에 이렇게 숙전*에서 자란 건 인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흙 색깔이 서울 근처의 하천부지 흙하고 비슷해

서 낡이 들었느니 수은이 들었느니…… 중금속 채소라고 만져도 안 본다구.” [A]

“그럼 일일이 흙을 털어서 내놓는 거요?”

“툰다고 되나. 반대로 별장게 묻혀야지.”

“그렇게 놀랜흙*을 묻혀 놓으면 새로 야산 개간을 해서 심은 무공해 채소로 알고 사간다…… 이제 보니 채소도 위조품이 있구먼.”

“있지. 황토를 파다 놓고 한 차에 만 원씩 그 짓만 해 주는 이도 있고…… 어디, 이 씨가 직접 해 주고 [만 원] 더 벌여볼려우?”

논흙에서 희옅스름한 매흙 빛깔이 나뭇이 집터서리의 텃밭도 찰흙색을 띠는 것이 당연한데, 그 위에 벌건 황토를 뒤발하여 개간지의 산물로 조작하되 그것도 같고 가꾼 사람이 직접 해 줬으면 하고 유혹을 하니 듣던 중에 것처럼 욕된 말이 없었다.

영두는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으나 한두 번 신세진 사람도 아니고 하여 대거리를 하자고 나뉠 수도 없었다. 자칫 못 먹을 짓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면 속절없이 농담으로 들어넘기는 것이 상수란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조용히 말했다.

“권씨 말대로 하면 농사짓는 사람은 벌써 다 병이 들었거나 갈 데로 갔어야 할 텐데 거꾸로 더 팔팔하니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네…….”

권은 얼굴을 붉혔으나 그래도 그저 숙어들기가 어색한지 은근히 변나가는 소리를 했다. [B]

“하지만 사먹는 사람들이야 어디 그러우. 사먹는 사람들은 내다 팔 것들만 약을 치고 집에서 먹을 것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영두는 속으로 찢끔하였다. 권의 말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었던 것이다.

영두는 무 배추에 진딧물이 끼여 오가리가 들고 배추벌레와 노린재가 끊어 수세미처럼 구멍이 나도 집에서 먹을 것에는 분무기를 쓴 적이 없었다. 볼품이 없는 것일수록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를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런 물건을 내놓을 경우에는 값이 있을 리가 없었다.

언젠가는 농가에서 채소를 농약으로 코팅하여 내놓는다고 신문에 글까지 쓴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일이야말로 마지못해 없는 돈 들여 가면서 농약을 만져 온 농가에 물을 것이 아니요, 벌레가 조금만 값은 자국이 있어도 칠색팔색을 하며 달아나던 헛내기 소비자들이 자초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였다.

벌레 닿은 자국이 불결스럽다 하여 진딧물 하나 없이 깨끗한 푸성귀만 찾는다면, 그것은 마치 두메의 자갈길 흙먼지엔 질색을 하면서도 도심의 오염된 대기는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무심히 활개를 쳐 온 축들의 어리석음과도 견줄 만한 것이었다.

- 이문구, 「산 너머 남촌」 -

* 숙전(熟田): 해마다 농사를 지어 잘 길들인 밭.

* 놀랜흙: 생토(生土). 생땅의 흙.

38.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빈번하게 장면을 전환하여 사건 전개에 긴박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관점에서 사건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다.
- ③ 동시에 일어난 별개의 사건을 병치하여 사태의 전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인물이 겪은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39.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권중만'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과시하며 상대의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B]에서 '영두'는 상대와의 개인적 친밀감을 환기하며 서운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 '권중만'은 자신의 경험을 들어 상대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 '영두'는 상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지적하며 상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 ③ [A]에서 '권중만'은 자신이 상대에게 제시한 요구의 이유를 사람들의 선입견과 관련지어 밝히고 있고, [B]에서 '영두'는 상대의 말에 논리적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항변하고 있다.
- ④ [A]에서 '영두'는 상대의 제안에서 모순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 '권중만'은 다른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다.
- ⑤ [A]에서 '영두'는 상대의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을 드러내며 구체적인 조언을 요구하고 있고, [B]에서 '권중만'은 상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하며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고 있다.

40. **만 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권중만'과 '영두'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 이유이다.
- ② '영두'가 '권중만'의 조언을 수용하게 된 이유이다.
- ③ '권중만'이 '영두'에게 친밀감을 보이게 된 이유이다.
- ④ '영두'가 '권중만'에게 양보를 강요하게 된 이유이다.
- ⑤ '영두'가 '권중만'에게 부정적으로 반응하게 된 이유이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작품은 1980년대 농민들의 생활을 형상화하고 있다. 작가는 농민들이 농사의 경제적 이익을 고려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 작품 속 '영두'는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를 인식하면서도 이러한 태도를 지켜나가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작가는 이를 통해 당대 농민들이 겪고 있던 어려움을 현실감 있게 보여 준다.

- ① 농민들이 권중만을 보고 '채소를 돈거리로 갈기 시작'하는 상황은, 농사를 통한 경제적 이익 창출을 고려하는 농민들의 면모를 드러내는군.
- ② 영두가 '국내 수요'와 '대일 수출'을 언급하며 권중만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는 농민의 현실을 드러내는군.
- ③ 영두가 '밭떼기 장수'를 '미더운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농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영두의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④ 영두가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군.
- ⑤ 영두가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에도 불구하고 '불품이 없는 것'이 '값이 있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가치관을 따르기 어려운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군.

[42~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춘향 어미는 삼문간에서 들여다보고 땅을 치며 우는 말이,
 “신관 사또는 사람 죽이러 왔나? 팔십 먹은 늙은 것이 무남독녀 딸 하나를 금이야 옥이야 길러내어 이 한 몸 의탁코자 하였더니, 저 지경을 만든단 말이오? 마오 마오. 너무 마오!”
 와르르 달려들어 춘향을 얼싸안고,
 “아따, 요년아. 이것이 웬일이냐? 기생이라 하는 것이 수절이 다 무엇이냐? 열 소경의 외막대 같은 네가 이 지경이 되었으니 어디 가서 의탁하리? 할 수 없이 죽었구나.”
 향단이 들어와서 춘향의 다리를 만지면서,
 “여보 아가씨, 이 지경이 웬일이오? 한양 계신 도련님이 내년 삼월 오신했는데, 그동안을 못 참아서 황천객이 되시겠네. 아가씨, 정신 차려 말 좀 하오. 백옥 같은 저 다리에 유혈이 낭자하니 웬일이며, 실낱같이 가는 목에 큰 칼*이 웬일이오?”

[A]

(중략)

칼머리 세워 베고 우연히 잠이 드니, 향기 진동하며 여동 둘이 내려와서 춘향 앞에 꿇어앉으며 여쭙오되,

“소녀들은 **황룡묘 시녀**로서 부인의 명을 받아 낭자를 모시러 왔사오니 사양치 말고 가사이다.”

춘향이 공손히 답례하는 말이,

“황룡묘라 하는 곳은 **소상강 만 리 밖** 멀고도 먼 곳인데, 어떻게 가잔 말인가?”

“가시기는 염려 마옵소서.”

손에 든 **봉황 부채** 한 번 부치고 두 번 부치니 **구름같이** 이는 바람 춘향의 몸 훌쩍 날려 공중에 오르더니 여동이 앞에서 길을 인도하여 석두성을 바빠 지나 한산사 구경하고, 봉황대 올라가니 왼쪽은 동정호요 오른쪽은 팽령호로다. 적벽강 구름 밖에 열두 봉우리 돌렸는데, 칠백 리 동정호의 오초동남 여울목에 오고 가는 상인들은 순풍에 돛을 달아 범피중류 떠나가고, 악양루에서 잠깐 쉬고, 푸른 풀 무성한 군산에 당도하니, 흰 마름꽃 핀 물가에 갈까마귀 오락가락 소리하고, 숲속 원숭이가 자식 찾는 슬픈 소리, 나그네 마음 처량하다. 소상강 당도하니 경지도 기이하다. 대나무는 숲을 이루어 아황 여영 눈물 흔적 뿌려 있고, 거문고 비파 소리 은은히 들리는데, 십층 누각이 구름 속에 솟았다. 영롱한 전주발과 안개 같은 비단 장막으로 주위를 둘러는데, 위기도 웅장하고 기세도 거룩하다.

여동이 앞에 서서 춘향을 인도하여 문 밖에 세워 두고 대전

에 고하니,

“**춘향이 바빠 들라** 하라.”

춘향이 황송하여 계단 아래 엎드리니 부인이 명령하시되,

“대전 위로 오르라.”

춘향이 대전 위에 올라 손을 모아 절을 하고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좌우를 살펴보니, 제일 층 옥가마 위에 아황 부인 앉아 있고 제이 층 황옥가마에는 여영 부인 앉았는데, 향기 진동하고 옥으로 만든 장식 소리 쟁쟁하여 하늘나라가 분명하다. 춘향을 불러다 자리를 권하여 앉힌 후에,

“춘향아, 들어라. 너는 **전생** 일을 모르리라. 너는 부용성 영주공의 **운화 부인 시녀**로서 서왕모 요지연에서 장경성에 눈길 주어 복승아로 희롱하다 인간 세상에 귀양 가서 시련을 겪고 있거니와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니 **마음을 변치 말고 열녀를 본받아** 후세에 이름을 남기라.”

춘향이 일어서서 두 부인에게 절을 한 후에 달나라 구경하려다가 발을 잘못 디더 깨달으니 한바탕 꿈이라. 잠을 깨어 탄식하는 말이,

“이 꿈이 웬 꿈인가? 뜻 이룰 큰 꿈인가? 내가 죽을 꿈이로다.”

칼을 비스듬히 안고

“애고 목이야, 애고 다리야. 이것이 웬일이고?”

향단이 원미를 가지고 와서,

“여보, 아가씨. 원미 쭈어 왔으니 정신 차려 잡수시오.”

춘향이 하는 말이,

“원미라니 무엇이냐, 죽을 먹어도 이죽을 먹고, 밥을 먹어도 이밥을 먹지, 원미라니 나는 싫다. 미음물이나 하여다오.”

미음을 쭈어다가 앞에 놓고,

“이것을 먹고 살면 무엇할꼬? 어두침침 옥방 안에 칼머리 비스듬히 안고 앉았으니, 벼룩 빈대 온갖 벌레 무른 등의 피를 빨고, 굶은 비는 부슬부슬, 천둥은 우루루, 번개는 번쩍번쩍, 도깨비는 획획, 귀신 우는 소리 더욱 싫

다. 덤비는 것이 헛것이라. 이것이 웬일이고? 서산에 해 떨어지면 온갖 귀신 모여든다. 살인하고 잡혀 와서 아흔 되어 죽은 귀신, 나라 곡식 훔쳐 먹다 곤장 맞아 죽은 귀신, 죽은 아낙 능욕하여 고문당해 죽은 귀신, 제각기 울음 울고, 제 서방 해치고 남의 서방 즐기다가 잡혀 와서 죽은 귀신 처량히 슬피 울며 ‘동무 하나 들어왔네’ 하고 달려드니 처량하고 무서워라. 아무래도 못 살겠네. 동방의 귀뚜라미 소리와 푸른 하늘에 울고 가는 기러기는 나의 근심 자아낸다.”

한없는 근심과 그리움으로 날을 보낸다.

이때 이 도령은 서울 올라가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공부하여 글짓는 솜씨가 당대에 제일이라. 나라가 태평하고 백성이 평안하니 태평과를 보려 하여 팔도에 널리 알려 선비를 모으니 춘당대 넓은 뜰에 구름 모이듯 모였구나. 이 도령 복색 갖추어 차려 입고 시험장 뜰에 가서 글 제목 나오기 기다린다.

시험장이 요란하여 현제관을 바라보니 ‘강구문동요’라 하였겠다. 시험지를 펼쳐놓고 한번에 붓을 휘둘러 맨 먼저 글을 내니, 시험관이 받아보고 글자마다 붉은 점이요 구절마다 붉은 동그라미를 치는구나. 이름을 뜯어 보고 승정원 사령이 호명하니, 이 도령 이름 듣고 임금 앞에 나아간다.

- 작자 미상, 「춘향전」 -

* 칼: 죄인에게 씌우던 형틀.

* 강구문동요(康衢聞童謠): 길거리에서 태평세월을 칭송하는 아이들 노래를 들음.

[C]

[B]

42. [A]와 [B]를 통해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춘향 어미’의 비난을 통해, [B]에서는 ‘향단’의 옹호를 통해 ‘신관 사또’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인식을 알 수 있다.
- ② [A]에서는 ‘춘향 어미’의 만류를 통해, [B]에서는 ‘향단’의 재촉을 통해 ‘춘향’의 수절에 대한 두 인물의 상반된 인식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는 앞날을 걱정하는 ‘춘향 어미’를 통해, [B]에서는 ‘춘향’의 현재 상태를 염려하는 ‘향단’을 통해 ‘춘향’의 고난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A]에서는 격앙된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는 모습을 통해, [B]에서는 ‘춘향’에게 음식을 정성스레 건네는 모습을 통해 ‘향단’의 침착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A]에서 ‘도련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춘향 어미’의 모습과 [B]에서 ‘춘향’의 앞날을 걱정하는 ‘향단’의 모습으로 인해 ‘춘향’의 내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3. [C]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간의 특징을 열거하여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비현실적인 존재를 언급하며 자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자연물을 통해 자신의 근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과 함께 자신의 신세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신과 같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45.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죽을 꿈이로다’라는 춘향의 말보다는 이 도령이 과거에 급제한 상황에 주목하며 두 인물의 재회를 예상할 것이다.
- ② 꿈에 대해 자문하며 탄식하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춘향이 현실에서의 정체성에 의문을 갖게 되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 ③ 두 부인과의 만남이 꿈임을 깨닫는 춘향의 모습을 보고 꿈과 현실의 대비가 주는 허무함을 절감하게 될 것이다.
- ④ 춘향이 자신의 실수로 꿈에서 깨어나는 장면을 춘향의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는 암시로 받아들일 것이다.
- ⑤ 꿈에서 ‘달나라 구경’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난 춘향이 꿈에 대한 미련을 보이리라고 예상할 것이다.

※ <보기>를 참고하여 44번과 4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 기 >

서사적 모티프란 전체 이야기를 구성하는 작은 이야기 단위이다. 이 작품에서는 황룡묘의 주인이자 정절의 표상인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등장하는 황룡묘 모티프가 사용되었다. 이는 천상계와 인간 세상, 전생과 현생, 꿈과 현실의 대응을 형성하면서 공간적 상상력을 풍요롭게 하는 동시에 주인공의 또 다른 정체성을 드러낸다.

서사적 모티프는 작품을 읽는 독자에게 서사 이해의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게 한다. 황룡묘 모티프에서 ‘머지않아 장경성을 다시 만나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는 두 부인의 말을 감안하여, 독자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

4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춘향이 잠이 들어 ‘황룡묘 시녀’를 만난 것은 황룡묘 모티프를 통해 꿈과 현실의 연결이 일어나게 됨을 보여 주는군.
- ② ‘봉황 부채’에 의한 ‘구름 같이 이는 바람’을 타고 ‘소상강 만리 밖’ 황룡묘까지 춘향이 날러가는 것은 꿈속 공간의 초월적 성격을 드러내는군.
- ③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춘향이 바빠 들라’라고 명령하는 것은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춘향에게 인간 세상에 대비되는 천상계의 질서가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전생’에 춘향이 ‘운화 부인 시녀’였다는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의 말은 전생과 현생의 대응을 드러내면서 공간적 상상력의 확장을 유도하는군.
- ⑤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춘향에게 ‘마음을 변치 말고 열너를 본받’으라고 당부하는 것은 춘향이 정절을 지켜나갈 인물임을 암시하는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